



머리글

이중헌 요셉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우리의 자격은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2코린 3,5)

지난 6월 20일 남부교도소에서 7명의 형제가 견진성사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의 관심과 도움 덕분에 견진성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집전해주신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님, 곁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봉사자분들과 교도관님 그리고 끝까지 견진성사를 잘 준비해준 7명의 형제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월 동안 교리를 하면서, 형제님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은 ‘자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신부님 제가 과연 견진성사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하느님은 믿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견진성사를 받아도 될까요?’ 견진성사 당일까지도 고민하고 이야기했던 주제입니다. 아마도 스스로의 부족함과 나약함 때문이었겠지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하느님 앞에서 그 누가 완벽하고, 충분한 자격을 지닐 수 있을까요? 자격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의 여러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였던 모세를 불러주셨고, 가장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였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는 으뜸이 되는 제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바오로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도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자격을 다 갖춘 이들을 부르시기보다, 당신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느님을 믿고 따르며,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격을 갖추어 나가면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자격은 하느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극복하기 쉽지 않은 나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둠 속으로 숨으려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고개를 들어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는 나의 절실한 노력이 우리의 삶을 보다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변화시켜줄 것입니다. 항상 죄인들에게 먼저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던 하느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과 위로가 되는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자격으로 견진성사를 받으신 7분의 형제님들, 요셉 형제님, 스테파노 형제님, 루카 형제님, 도마 형제님, 루카 형제님, 다니엘가브리엘 형제님, 암브로시오 형제님!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기쁘고 당당하게 하느님의 뜻을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견진성사 받으심을 축하드립니다.

서울남부교도소 공장 견진성사



6월 20일(화) 서울남부교도소 공장에서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님의 주례로 견진성사가 봉헌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 견진교리를 통해 신앙을 다지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봉사자와 교도관들이 7명의 견진자들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견진성사의 은총으로 더욱 성숙된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울대신학교 신학과 4학년 신학생 사회사목국 실습



6월 19일(월)~26일(월) 서울대신학교 신학과 4학년 신학생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들의 삶을 느낄 수 있는 사회사목국 실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배정받은 신학생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닌 소외된 이들의 삶을 체험하며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기쁨과희망은행 15주년 운영위원 야유회



6월 25일(일) 기쁨과희망은행 15주년을 맞이하여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를 비롯한 기쁨과희망은행 실무자, 운영위원들이 서울대신학교를 방문하여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늘 기쁨과희망은행을 위해 애쓰는 운영위원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 찬미예수님.

이중현 신부님, 안녕하세요?

6월 20일 성정하상 바오르 공소에서 있었던 견진성사,
감사했습니다. 유경춘 주교님 뵈실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두 분이 미사를 공동 집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입상
성가 1번 《나는 믿나이다》를 부르는데, 가슴 속 깊이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고 자꾸 눈물이 쏟아져 고결 참아
내느라 힘들었습니다. 아자 미사가 아니었다면 영영
대성통곡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편지 받아 보실 때
쯤이면 아마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변화무쌍한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교정사목위원회 모든 분들과 후원자 여러분께 늘
감사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과 성모님의 은총이 신부님과 수녀님 그리고
교정사목위원회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2023. 6. 24.

성정하상 바오르 공소에서

이중현 올림

향기를 머금은 빛의 일주일

이순석 안토니오_서울대신학교 신학과 4학년



사회교정사목위원회의 주제 성구는 마태오 복음 25장 36절의 너희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라는 문구입니다. 이로부터 죄인들의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형수였음과 동시에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물론 본질적으로는 재소자들과는 다르게 사형대에 오르셨지만 처음 접해보는 교정사목을 통하여, 비록 일주일밖에 되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나마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함께 미사를 올렸습니다. 그럼으로써 더욱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사람이 되셨음을 느꼈습니다.

저보다 먼저 실습으로 참여한 선, 후배 신학생들에게 말로만 듣던 평범이 제가 일주일 동안 겪은 재소자들과 출소자들을 직접 뵈며 확신이 되었습니다. 이 확신은 더욱 그분들에게 편견과 차별 없이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었고, 그들 속에 있는 ‘작은 예수’의 모습이 흐릿하지만,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성체를 모시느라 반주가 끊긴 중에도 4절까지 이어 부르는 미사 속에서의 적극성과 10~20년 동안 재소자들을 위한 봉사자들과 재소자들 간의 유대감, 그리고 저라면 15살에 생각할 수 없는, 사랑보다 상처를 먼저 느낌으로써, 상처와 사랑의 공존을 아이클레이(지점토)로 표현한 소년 교도소 아이의 모순된 감정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에 구치소를 들어갔을 때 기분이 오묘했습니다. 저는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사람. 정부의 허락을 받고 출입증을 받고 들어간 사람이니까 ‘안’과 ‘밖’의 구분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소자들에게 있어서 교도소는 ‘안’과 ‘밖’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외면하고픈 ‘현실’이고 하나는 성취해야 할 ‘미래’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향수’라는 깊은 향기에 취하면 극복하기 힘든 ‘현실’이 되고 향기를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다시금 ‘미래’가 ‘현실’이 될, 즉 재범을 일으킬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죄악으로 보이게 되는 간극으로 드러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향수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신, 죄인들을 당신의 나라로 이끌도록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당시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은 사형수이셨습니다. 더불어 그분께서는 당신의 모든 인생에 있어 낮은 자에게 해주는 것이 당신께 해주는 것이라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과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러기에 서로 단죄하면 안 되는 것을 간음한 여인에 대한 태도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구원을 받기 위해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당신처럼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애덕을 실천해야 합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것과 공감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과 이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의 삶처럼 내가 살 순 없지만, 그들과 함께 있어 주는 것. 혼자가 아니며, 혼자가 아니기에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어느 순간에서나 함께 있을 수 없지만,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공감을 위해 재소자분들과 출소자분들에게 신중히 경청과 관심을 표현해야 합니다. 먼저 다가가되 함부로 공감하려 하면 안 되며 선부른 대화는 아무리 본인의 선이라 할지라도 재소자들에게 호의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권위를 죄인들에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을 대하는 사람들에게만 권위를 다루셨을 뿐입니다. 오히려 죄인들의 말을 천천히 들어주시고 함께 식사하시며 어느 장소에서든지 함께 동석하셨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타인과 함께 있어 주는 것과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본인의 짧은 식견으로 마무리하자면 존 롤스가 말한 문구 중에 ‘무지의 베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심판하는 죄인들의 경중만을 따진다는 개념입니다. 상대가 재벌이든지 사회적 약자이든 간에 모두에게 평등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만든 모든 이론과 개념에 한계가 있더라도 롤스가 말한 이 표현은 타인을 바라볼 때, 특히나 법의 심판을 받는 경우, 올바르게 판단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모든 재소자는 일단 현재 우리와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동등한 한 인간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현세에서는 다를지 몰라도 재림 이후 당신의 심판 앞에서는 어떠한 신분과 재산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시간 안에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펼쳐질 뿐입니다. 즉 우리가 모르는 그때의 일들과 심판은 예수님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저 하늘 아래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첨가하거나 추가하지 않으며 ‘우리 일이 아닌 숨겨진 것들을 들춰내지 말라’는 집회서의 말씀처럼 일단 마추한 사람 앞에서는 예수님의 일로서 예수님처럼 재소자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곳 빛의사람들 교정센터에서 출소자들과 함께 머물며 식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거실 소파에서 대화하며 짧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생활하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분들과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로사리오를 함께 하며 공동 지향으로 세상의 평화와 안위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순간이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그분들의 미래와 현실과는 관계없이 기도한 그 순간에 기도하는 소리만 들렸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언제나 함께였을 때 제일 아름다운 공동체의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적당한 향수처럼 말입니다. 좋은 꽃은 양지바른 곳에 두어야 합니다. 좋은 향기를 지닌 사람은 사람들의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최고의 향수입니다. 과거 없는 성인은 없고 미래는, 예수님의 재림 때처럼, 언제 어떻게 오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비록 그들의 과거가 어떠하였든 간에 이곳 빛의 사람들 센터에 거주하고 있는 출소자들은 사회교정사목위원회의 심사 아래 다시금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 중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존중받으며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현세 안에서 죄인을 위해 희생하라는 사명을 받은 교회가 그들을 지켜주므로, 우리 역시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두 늑대의 이야기

이은용_ 밀리언드림즈 대표
(교정시설 소자본 창업 교육 강사)

인디언 체로키족에서 전해 내려오는 「두 늑대의 이야기」 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추장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마리 늑대가 끔찍한 싸움을 벌이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검은 늑대와 하얀 늑대가 살고 있단다. 검은 늑대는 나쁜 늑대야. 화, 시기 질투, 슬픔, 후회, 욕심, 오만, 자기 연민, 죄책감, 억울함, 열등감, 거짓말, 잘못된 자존심, 우월감으로 뿔뿔 뭉쳐 있지. 반면 하얀 늑대는 착한 늑대야. 기쁨, 평화, 사랑, 희망, 평온함, 겸손, 친절, 자비, 공감, 너그러움을 가지고 있는 늑대란다. 이 늑대들은 우리 마음 안에서 끝없는 싸움을 하지. 물론, 다른 모든 사람의 내면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기냐고 묻자 “그야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지!”라고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말씀하며 동화는 끝이 납니다.

저는 요즘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자본 창업 교육 강의를 하면서 학창 시절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이 동화 이야기가 종종 생각이 나곤 합니다.
창업 교육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검은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어서 지금의 상황에 놓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 교육에 참여하는 수용자들에게 희망이라는 이미지를 함께 심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동화의 이야기에서처럼 자신의 하얀 늑대에게 희망과 꿈이라는 먹이를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업을 진행할 때 처음에는 수동적으로 참여하던 교육생들이 자신들의 아이টে을 가지고 실제로 사장님이 되어서 고객분석하고 함께 수업을 듣는 동료들이 마치 자신의 고객이 된 것처럼 역할을 서로 바꿔 가면서 제품을 판매하는 사장님과 고객이 되어 제품과 서비스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이런 시간을 갖다 보면 어느새 수동적 자세로 수업에 참여하던 교육생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업 아이টে을 소개하고 고객의 소리에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저는 이런 교육의 경험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실날같은 희망을 키워가며 출소 후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가는 원동력이 되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대화와 경청의 시간을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동료의 의견을 경청하며 내 생각을 전달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 안의 검은 늑대에게 열등감과 우월감, 그리고 잘못된 자존심의 먹이를 주는 것을 지금 멈추고 하얀 늑대에게 겸손과 친절, 너그러움의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절대화시켜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교육을 받는 분 중에는 상대방과 사회에서 어떻게 대화하고 의사소통을 진행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배워보지 못해서 문제가 습관적으로 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업 교육 시간 중간중간 강사 혼자서 진행하는 ‘일 방향성’ 강의보다는 그룹별 토의 및 발표 수업 방식을 넣어서 참여하는 분들이 서로서로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아이디

어를 발표하는 기회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점차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고 수용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참 좋아하는 데 얼마 전 좋아하는 야구팀의 2군 연습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2군 연습장에 이런 슬로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절실하지 않은 자는 꿈을 꿀 수 없다.” 아마도 절실하게 연습하고 훈련한 사람만이 1군 프로무대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다는 뜻으로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슬로건이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바라는 기쁨과희망은행에서 진행되는 창업 교육이 수용자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보다 나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이 되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들 스스로 절실하게 준비할 때 자신의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돕는 징검다리가 되길 다시 한번 응원합니다.

● 교정시설 출소 예정자 창업교육 ●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2023년 9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9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010-3732-5093



▶ 카카오톡 채널

제24회 교정시설 자원봉사자교육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교정시설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의 교정교화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교육을 시행합니다

- 일시: 2023년 9월 1일(수) ~ 10월 11일(수)
매주 수요일 10:00~13:00 / 14:00~17:00(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방법: 온라인 교육 / 심화 교육(교정사목센터)
- 회비: 10만원 / 우리은행 1005-903-307477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 마감: 8월 25일(금)까지 ■ 문의: 02)921-5093



▶ 봉사자교육 신청

● 행사 알림

- 8월 7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 가톨릭회관 3층
- 8월 9일(수)~11일(금) 고봉중고등학교 여름신앙학교
- 8월 12일(토)~13일(일) 아차산성당 후원회원 모집 미사 / 아차산성당
- 8월 16일(수)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 센터
- 8월 16일(수)~18일(금) 한국 가톨릭 교정사목 전국협의회 사제·수도자 연수 / 마산 가톨릭교육관
- 8월 22일(화)~24일(목) 기쁨과희망은행 소자본 창업교육 / 서울남부구치소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23/6/17~7/12)

2023년 6월~7월에는 심민정 글라라, 이영선 세실리아, 이우영, 전영문 프란치스코, 지상욱 요셉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이종서 세례자요한, 전성임 리타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 방법

1.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atholic-correction.co.kr>)
'후원신청'을 클릭 및 오른쪽 '모바일 후원신청 QR코드'로 신청

2.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전화로 신청하기 / 후원사업부(02-921-5094)

3. 직접 은행에 신청하기

- 직접 자동이체 신청 시 후원사업부(02-921-5094)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7면 '후원 계좌'로 이체 등록
- 은행 방문 시 준비물(신분증, 도장, 통장) 지참 후 아래 계좌로 이체 신청



▶ 모바일 후원 신청